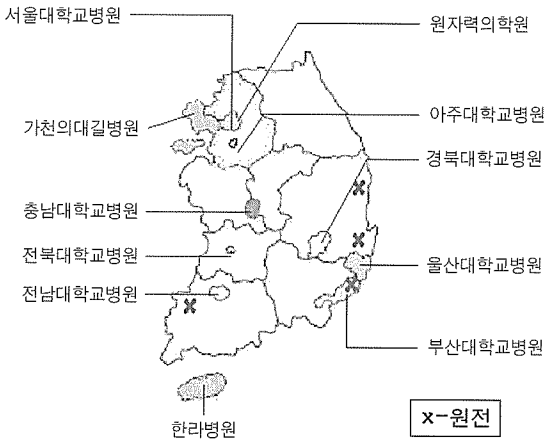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축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재난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중대에 따른 각종 방사능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 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법률제6873호 : '03. 5.15)」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 구축)에 따라 지난 6월 25일(금)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공립종합병원 10곳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이들 10개 방사선비상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비상진료장비 공급 및 교육·훈련비 등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정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전국 권역별로 입원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중에서 선정되어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와 방사능 사고시 사고현장에 비상진료팀을 파견하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함께 방사능오염환자의 치료 및 병원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12월까지 종합병원 규모의 비상진료기관을 2개 확대하여 12개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10개 신규 지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재난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중대에 따른 각종 방사능 사고시에도 국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2차 방사선비상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의대 길병원(인천), 아주대학교병원(수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 한라병원(제주) 등이다.

제7차 「원자력안전마크」수여

과학기술부는 7월 14일(수) 제7차 '원자력안전마크' 수여식을 갖고, '원전 격납용기 절개 및 재 밀폐공사 기술(현대건설 원자력사업단)', '삼창기업(주) 원자력사업본부' 등 2개 기술 및 기관에 각각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하였다.

우수기술로 선정된 '원전 격납용기 절개 및 재 밀폐공사 기술'은 '98년 6월부터 '98년 9월까지 실시된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에 적용되어, 원자로 격납건물의 개방구 설치 및 성공적 복원을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원자

로 격납건물은 차폐용 콘크리트와 철제 격납용기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구 설치 및 복원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다.

삼창기업(주) 원자력사업본부는 산업플랜트 및 원자력 계측제어분야 전문업체로, '81년부터 원전 계측제어분야의 시공, 시운전 및 정비업무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무재해 5배(2,400일, '94.9.16 ~ '02.1.7)를